산업통상자원부	**보 도 자 료**	http://www.motie.go.kr

2018년 7월 3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7. 2.(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8. 7. 2.(월)	담당부서	산업일자리혁신과 무역진흥과
담당과장	최연우 과장(044-203-4220) 박덕열 과장(044-203-4030)	담 당 자	차세운 사무관(044-203-4224) 허희정 사무관(044-203-4032)

산업부 장관, 반도체 수출업체 방문

-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, 하반기 수출 현장점검 -

□ **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**은 7. 2.(월)에 반도체 소재 기업인 ㈜동진쎄미켐을 방문, **노동시간 단축 현장을 점검**하고 하반기 **수출 여건 및 애로를 청취**하면서, 이에 대한 **정부 지원 방안**을 설명했다.

< 현장방문 개요 >

ㅇ 일시: 7.2(월) 15:00
ㅇ 장소: ㈜동진쎄미켐(경기도 화성)
ㅇ 참석자: 백운규 산업부 장관, 이부섭 동진쎄미켐 회장 등
ㅇ 논의내용: 노동시간 단축 관련 업계 대응 현황, 하반기 수출 여건 및 정부 지원책

□ 이번 방문은 7. 1.부터 노동시간 단축 적용대상이 되는 **수출 중견기업**으로부터 **노동시간 단축 안착 방안**과 **애로사항을 청취**하는 동시에,

* 노동시간단축 적용 시기: **(300인 이상) '18.7.1**, (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`19.7.1)
(50~300인미만) '20.1.1, (5~50인미만) '21.7.1

ㅇ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등으로 하반기 **수출 여건 악화에 대비**, **수출 현장을 점검**하고 **지원 방안을 소통**하기 위해 이루어졌다.

< 노동시간 단축 관련 >

□ 이부섭 ㈜동진쎄미켐 회장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, "**교대제를 새로이 도입**하면서 생산직 근로자를 **신규 채용**하는 동시에, **급여·퇴직금 보전** 등을 통해 노동시간이 단축되더라도 **직원들의 소득이 낮아지지 않도록** 신경 쓰고 있다."라고 말했다.

○ 백운규 장관은 ㈜동진쎄미켐을 **'일자리 나누기'**의 **모범 사례**로 평가하면서, "일과 생활의 균형"을 보장하고 고용도 증가시킬 수 있는 **노동시간 단축에 기업들이 적극 동참**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,

○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**인건비 지원을 확대***하고, 노동시간 단축 **시행 초기(6개월)**에는 기업에 대한 **계도 활동에 집중****하는 등, 정부도 노동시간 단축의 안착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음을 설명했다.

* '일자리 함께하기 사업' 확대·개편
- 300인 이상 기업 : 지원가능금액 인상(月 40→60만원), 재직자 임금보전 지원대상 확대
- 300인 미만 기업(선제적 단축기업) : 지원가능금액 인상(月 80→100만원), 지원가능기간 연장(2→3년)

** 근로감독 등의 과정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어도, 최장 6개월까지 시정기간 부여

○ 아울러,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**탄력적 근로시간제***과 관련해서는, 실태조사를 통해 업계 애로사항을 파악한 후 현행 제도상 **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시**에는, **개선 방안**(단위기간 연장 등)을 **협의해 나갈 예정**이라고 밝혔다.

< 하반기 수출 관련 >

□ 백운규 장관은 상반기 **역대 최대 실적**을 기록한 **수출**이 하반기에도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,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심화 및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인해 **다소 불확실성**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.

* `18년 상반기 수출 2975억$ (전년동기비 6.6%↑), 반기 기준 사상 최대 수출 실적

○ 이에, 백운규 장관은 **하반기 수출 확대**를 **총력 지원**하기 위해, 당초 6월 한달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**무역보험 및 수출마케팅 특별지원 서비스**를 올해 **9월 말까지 연장**한다고 말하고,

○ 앞으로도 **수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**하면서, 우리 기업들이 **흔들림 없이 수출 확대**를 이어갈 수 있도록 **전방위적이고 총력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**해 나갈 예정임을 강조했다.

❶ 무역보험: 단기수출보험* 한도 및 보험료 우대

* 단기수출보험 : 결제기간 2년 이하 단기 수출기업에 수출대금 미회수 손실 보상

○ 모든 수출기업이 신남방·신북방 및 고위험 신흥국 진출시 단기수출보험 신규 한도는 최대 2배까지 확대하고, 기존 한도는 6월 특별지원에 따라 20% 일괄 증액한 한도를 감액 없이 유지

* 예시: (특별지원前) 수출기업 A社는 거래 중인 수입자 B社 관련 한도 1,000만불 이용중
→ (後) 기존 수입자 B社 한도를 1,200만불로 증액(9월말까지 유지)
+ 신규 계약 수입자 C社 한도는 가능금액 800만불에서 1,600만불로 확대

○ 중소·중견기업이 위 신흥시장 진출 시, 기존 중소·중견기업 대상 30% + 10% 추가 할인

* 예시: (특별지원前) 수출 규모 10억원인 중소기업 C社는 원보험료가 100만원이나, 30% 할인으로 70만원 납부
→ (後) 10% 추가 할인으로 63만원만 납부

❷ 수출마케팅 특별지원 프로그램

○ 수출 중소·중견기업 3,500개 대상으로 기업당 "바이어 더 찾기 활동"*을 통해 성약 유망 건을 발굴하고, 거래성공까지 밀착 지원

* 기업당 바이어 1개사 + 바잉오퍼 3건 추가 발굴

○ 해외 현지 수요 긴급 대응형 수출상담회 개최, 전시회(73회)·무역사절단(128회) 집중 지원*으로, 수출시장 다변화·진출채널 확대

* 로봇·바이오·전기차 등 고부가·신산업 및 뷰티·패션 등 소비재 중심 전시회 집중참가, 신남방·신북방·중남미 등 신흥국 중심으로 무역사절단 파견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차세운 사무관(☎ 044-203-422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